

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그 시간 속으로

Part.2

글. 이원영 (주)B 엔지니어링 상무, 정보통신기술사 / 前 MBC TV송출부

피에스타 지구 서쪽 명물

Santiago

지난 호에서는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 전반에 대한 저의 감정과 경험을 이야기 형식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의 버킷리스트였던 순례길 여행을 위한 출발을 시작으로 33일의 기간에 800km의 거리를 걷는 여정을 통해 보고 느꼈던 부분과 제 생각을 서술했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궁금증을 상황별로 구성한 Q&A로 여러분의 여행 길잡이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Q1. 카미노 순례길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어느 날 TV를 보다가 채널을 돌리는데 다큐멘터리를 하는 채널에서 제가 잠시 멈추게 된 사건(?)이 나의 순례길 시작이었죠. 아마도 지금 생각하면 <걸어서 세계속으로>라는 KBS 프로그램이었을 겁니다. 광활한 메세타 구간을 걷는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거기에 매료되어 그때부터 유튜브를 검색하면서 순례길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Q2. 언제, 어떤 루트로 걸으셨나요?

저는 2025년 2월 4일 출국으로 프랑스 생장에서 출발하는 '프랑스 루트'를 이용하였어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이용하는 루트로 시작점에는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을 이루는 피에르 산맥을 넘어야 하는데 동계기간(11월부터 4월)에는 피에르 산맥 루트를 폐쇄하여 우회 루트인 발카로스 루트를 통해 국경을 넘게 됩니다.

Q3. 순례길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순례길 준비는 다양한 부분이 있게 되는데, 우선 체력적인 준비로는 정기적인 수영과 걷기 운동을 하면서 체력 관리를 하였어요. 시간이 될 때는 하루 최소 20km 이상을, 배낭을 메고 걸어보기도 하고 비가 오는 날 판초우의를 입고 걸어보기도 하고 휴가를 내서 제 주도 올레길을 연속 5일 이상 걸어보기도 하는 등 꾸준히 체력 관리 및 점검을 하였어요.

두 번째인 장비 부분을 말씀드리면, 주요 장비로는 배낭(50ℓ용), 침낭(200g), 겨울용 의류 2벌, 상



하 속내의 3벌, 양말 3족(아니, 아우터), 판초우의, 바람막이 상의, 모자 2개(챙이 큰 것, 짧은 것), 충전 제품(충전기, 휴대용 배터리), 각종 케이블(충전용), 노트(소형), 전화기(사용 핸드폰), 물통 등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 정보수집 면에서는 주로 유튜브를 통해 현지 상황을 영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메모하곤 하였죠. 그러나 사실 막상 현지에 가 보니 사전 정보보다는 직접 대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잘 처리되더라고요. (웃음)

Q4. 배낭 무게는 어느 정도였나요?

꼭 필요했던 물품과 불필요했던 물품은?

이 질문이 가장 저에게는 아킬레스건과 같은 질문입니다. 배낭을 사전에 순례길용으로 50ℓ용을 준비하였는데 통상 50ℓ 배낭의 경우 최대 패킹 시 무게가 약 20kg 정도 나오게 되는데 저의 경우는 약 14kg 정도로 꾸러 이동하였습니다. 순례길 위원회에서 권장하는 배낭 무게는 자신 몸무게의 1/10로 추천하고 있어 저의 경우는 70kg 몸무게에 7kg의 무게로 이동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가져가야 할 옷 한 벌로 버티고 판초우의, 침낭뿐이 돼서 불가능하더라고요.



산티아고 입성

Q5. 순례길에서 이동통신은 어떻게 하셨나요?

순례길은 프랑스 생장에서 출발 하루 만에 스페인 지역으로 이동하기에 저는 스페인 모바일용 유심(USIM) 카드를 구매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매한 스페인 유심 사용기한에 오해가 있어 구매 오류로 고생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선 유심을 직접 구매 시 출국일을 요구하는데 그 날짜가 유심 시작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28일간 사용할 수 있는 유심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연장되는 기간을 위해 추가 유심을 구매하면 그때는 출국일을 첫 번째 구매한 유심이 끝나는 날로 지정해야 연계해서 추가 28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두 번째 유심카드 역시 동일 출국일로 구매해 (사실 저는 유심을 장착하는 날이 개통일로 이해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인터넷과 전화가 안 돼서 스페인 친구의 도움으로, 신규로 유심을 재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을 겪기도 했죠.

Q6. 순례길을 떠나기 전에 가장 걱정이 되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건강이었죠. 이국땅에서의 도보여행은 현지 자연에 따른 환경 영향 등이 나에게 미치는 건강 상태가 가장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약국에 들러 처방이 불필요한 상비약 위주로 약을 챙겨갔고 사실 돌아올 때 거의 미사용분으로 가져오기도 했지만요.

Q7. 하루 평균 몇 km 정도 걸으셨나요? 일정은 어떻게 계획하셨나요?

통상 프랑스 루트 길은 약 800km 거리로 하루 25km로 일정을 잡게 되면 약 32일 정도의 여정을 잡게 됩니다. 저 역시 이 정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고 주로 도착지 마을의 알베르게 오픈 여부에 따라 5km 정도 가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Q8. 숙박은 주로 어디서 하셨나요?

순례길에서의 숙소는 다양한 숙소가 있는데 주로 알베르게(Albergue)라는 순례자용 숙소를 이용하게 되고 공립과 사립으로 나뉘어 있는데 동계 시즌에 사립 숙소는 거의 문을 닫고 공립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호스텔이라는 사립 숙소가 있는데 알베르게보다는 깨끗하고 침대 수가 적게 구성되어 샤워나 편의시설 이용이 편한 건 사실이지만 가격 면에서 알베르게보다 보통 2배에서 3배까지 비싼 편입니다.



어느 식당의 메뉴



카미노 친구들과의 저녁



Q9. 순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나 순간이 있었나요?

순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나 순간이라면 메세타 평야를 걸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도 평야에 딱 들어서면, 약 10km 정도 제가 걷는 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평야 길로, 좌우로는 밀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지요. 제가 지났던 겨울에는 풀 한 포기 없는 척박한 땅만 보게 되어 아쉬운 감은 있었지만 얼마나 광활하고 공허한지 카카오톡을 켜고 라이브로 집사람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감동을 공유했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Q10. 다른 순례자들과의 교류는 어땠나요? 인상 깊었던 만남이 있었나요?

역시 순례길은 스페인 땅이지만 그 길을 걷는 세계 각지에서 온 순례자들을 만나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로 다양한 교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저의 경우 출발지에서 만난 한국인 이외에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베트남, 중국, 네덜란드, 한국인 등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어요. 우선 길을 걷다 만나게 되면 간단한 잡담으로 출신지, 이름, 순례 일정, 목적지, 순례 이유 등을 묻곤 각자의 걸음 페이스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연하게도 숙소를 동일하게 잡게 되면 당일 저녁을 외식으로 함께 나가 먹거나 요리



순례길을 걸으며 봤던 인상적인 벽화

가 가능한 친구들은 함께 슈퍼에 나가 재료를 사서 돌아와 숙소 부엌에서 요리해서 함께 나누어 먹는 좋은 교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공립 알베르게의 경우 자원봉사자인 호스피탈레노들이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나에라마을에서는 호스피탈레노의 요청으로 도착 순서로 순례자들이 각국의 인기 있는 곡을 소개하도록 하여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역시 'APT')



800km를 걷겠다는 목표보다는
왜 내가 800km를 걷고자 하는지의
목적이 있다면 아마도 지금 당장
출발하셔도 될 듯합니다.

그리고 걷다 보면 여러분의 질문들을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하나씩
듣게 되리라 믿습니다.



Q11. 몸이나 마음의 어려움은 없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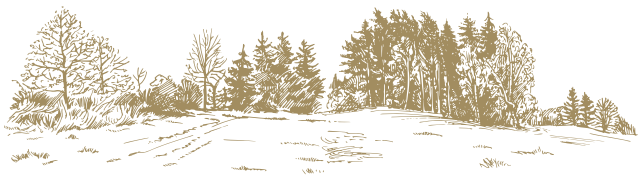
순례길의 긴 시간 동안 마음보다는 몸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강행해야 하는 어려운 30km 일정이 끝나기도 무섭게 점점 누적되는 피로감은 몸 전체에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하루는 로스아르고스라는 마을에서 취침 중에 무릎이 접히지 않아 더 이상 걷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천천히 스트레칭한 결과 무릎 통증은 자연스럽게 치유되었지만, 비로 인한 왼쪽 발바닥에 생긴 물집은 점점 커져 마침내는 부르고스라는 도시에 도착한 뒤 시립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해야만 했었죠. 덕분에 하루라는 일정이 미루어져 함께 했던 친구들과 일정이 바뀌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Q12. 순례길이 끝난 후 삶이나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순례길 내내 혼자 걷게 되고 걷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고는 하지만 뚜렷한 무언가가 머릿속에 머문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생각들을 숙소에도착하면 메모로 남기거나 편지로 적어 보내는 정도의 산출물 정도로 활용하긴 했습니다.

Q13. 다시 걷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다음엔 어떤 길을 걷고 싶으신가요?

다시 걷고 싶냐고요? 물론 그리고 싶죠. 그렇지만 집사람과 이제 40일 이상 떨어져 여행가는 건 아내에 대한 미안함으로 이제는 못 할 것 같네요. 그렇지만 혹 허락만 된다면 포르투갈 루트를 가보고 싶습니다. 해안 길 위주의 순례길과 포르투갈 사람들의 정취와 친절함을 느끼고 싶네요.



Q14. 카미노를 다녀온 뒤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요?

가족에 관한 생각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주변 가족들과의 시간과 지인들과의 시간 등이 우리 삶의 전부인 듯하더군요. 그래서 자주 보고 연락하고 만나고 등을 실천하고 있죠.

Q15. 초보자에게 추천하는 루트나 시기는?

초보자(?)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순례길은 레벨이 없어요. 그냥 걸으시면 되는 곳입니다. 다만 제가 전 기간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겨울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날씨가 좀 춥고 이에 따라 짐이 늘어나게 되며 특히 오픈한 알베르게의 수가 적어 숙소 잡기가 늘 신경 쓰이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추천해 드린다면 3월 말 출발해서 5월 초에 돌아오면 좋을 듯해요. 제가 마쳤던 3월 10일경 일부 사립 알베르게들이 오픈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거든요.

Q16. 꼭 챙겨야 할 장비 TOP3는 무엇인가요?

우선 배낭인데, 가장 가벼운 배낭 소재로 된 것을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제 배낭은 배낭 자체무게만 2kg으로 무거운 편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판초우의 입니다. 비가 자주 오고 오게 되면 많이 내리기도 해서 판초우의는 필수장비입니다. 용품 매장에서 좀 비싼 제품을 구매하고 넉넉한 크기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근육 이완용 크림입니다. 매일매일 도보 후 다리 등을 마사지해 주면, 다음날 개운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추천은 멘소래담 로션)

Q17. 이걸 꼭 해보면 좋다! 싶은 카미노 경험이 있었나요?

시간을 여유 있게 갖고 다녀오길 바랍니다. 일단 도착한 마을 투어는 아마도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겁니다. 작은 마을에서 소도시 등 스페인 사람들과 만나 어울리고 그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은 경험이 가장 좋았습니다.



부르고스의 아침



새벽 동틀 무렵의 하루를 여는 출발

Q18. 순례길을 걷기 전 가장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목표보다는 목적이 필요합니다. 800km를 걷겠다는 목표보다는 왜 내가 800km를 걷고자 하는지의 목적이 있다면 아마도 지금 당장 출발하셔도 될 듯합니다. 그리고 걷다 보면 여러분의 질문들을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하나씩 듣게 되리라 믿습니다. 